

「處容郎 望海寺」의 兆朕性

曹 壽 鶴

〈목 차〉

- | | |
|-------------------|-----------------|
| I. 緒 言 | 2. 『유사』의 조짐 개관 |
| II. 『三國遺事』의 兆朕 概觀 | III. 본문의 조짐성 분석 |
| 1. 조짐의 개념 | IV. 結 言 |

I. 緒 言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처용설화에 대한 연구는 약 250편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삼국유사』 권 제 2, 紀異 제 2, 「處容郎 望海寺」의 전문 약 540자에 불과한 문장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대개 작품의 전반부인 「처용가」와 그 설화 부분만을 잘라서 연구 검토하고, 나머지 후반부 설화와 결말 부분은 도외시해 왔었다. 그 결과 「처용랑 망해사」의 근본 취지는 실종되고, 각양각색의 억측이 난무하여 盲人探象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1984년에 줄고 「三國亡兆의 樣相」下에서¹⁾이 설화의 결말 부분인 “……乃地神山神知國將亡 故作舞警之……”에 착안하여 이 이야기의 主旨는 신라의 쇠망을 微表하는 亡國兆라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었으나, 「처용가」 부분에 대하여는 기왕의 학설 가운데, 疫神을 쫓는 巫覡의 呪

1) 조수학, 「三國亡兆의 樣相」下 『人文研究』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간 1984년.

歌라는 학설²⁾에 막연히 逼真性을 기대하면서, 끝내 자신있는 풀이를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미제로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 근자 琴基昌이 『어문학』 54호, 「처용가에 대하여」에서 「처용가」의 내용, '疫神犯妻'를, 경애왕이 포석정 연회중에 후백제 甄萱의 습격을 받아 “……而強淫王妃 縱其下亂其嬪妾……”과 대응시켜 이를 讖諺로 파악하였다.³⁾ 이는 비록 기록에 있는 그대로 해석한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국문학계에 있어서는, 실로 반세기 동안의 迷題를 풀어낸 卓見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학계가 新事大主義의⁴⁾ 기성 학학설에 群集盲從하던 타성⁵⁾에서 벗어난 새로

2) 林基中, 「新羅歌謠의 記述物의 研究」, 二友出版社, 1981년, 외 다수.

3) 金基昌, 「處容歌에 대하여」 『語文學』 54호 한국어문학회 간 1993.5.

4) 초기 일인학자들의 식민사관과, 한문문제에 대한 기초 상식도 없이 서구식 이론을 무차별 수용한 학자들을 지칭함.

5) 「群集盲從하던 타성」은 그동안 우리의 국학의 기초를 歪曲시키고 그 價値평가를 우리의 손으로 格下시킨 사실이 적지 않다.

그 폐단 사례 몇 가지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보겠다.

- ① 우리의 옛 소설의 주제는 千篇一律적으로 勸善懲惡이라는 說; 이는 동양의 傳文體의 褒貶性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구식 소설 이론에만 의존한 '신사대주의' 탓이었으며,
- ② 『金鰲新話』가 우리 소설의 처음이라는 說; 이는 동양 삼국에서 소설이 발생 하는 역사적 추세와 형평성을 망각한, 植民文學史觀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었으며,
- ③ 1세기에 가까운 「수이전」의 作者是非; 이는 동양 전 문체의 類別傳과 個別傳의 屬性을 모르고, 오직 일인 사학자 徐西龍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식민문학사관'의 탓이었으며,
- ④ 假傳이 事物의 傳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를 '假傳體'라 하면서 반세기가 다 되도록 盲人探象 격으로 연구 정력을 낭비한 사실; 이것 역시 한문의 문체를 파악하지 못한 '신사대가'의 맹점이었으며,
- ⑤ 『삼국유사』는 民族史觀이고 『삼국사기』는 事大史觀이라는 說. 이는 고려시대의 儒家는 進歩 改革主義임을 망각하고, 조선시대의 유가를 보는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라 하겠으며,
- ⑥ 天主教를 전파하는 신부와 신도는 성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박해하는 우리의 정부 당국자는 악인으로 부각시키는 學說 및 作家들; 이는 천주교, 즉 서교의 전래가 곧 東洋侵略의 前哨戰임을 망각한 탓이다. 그것은 祖上崇拜의 美風良俗을 고의로 '우상숭배'라고 捏造하여 조상의 제사를 금지시켜 놓고, 이를 의법처리하는 우리 정부의 자주권을 軍艦으로 위협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신사대주의사상'에 의한 發想이었으며,

운 안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

이 「처용랑 망해사」에는 동해 용신 處容, 남산 산신 祥審, 북악 산신 玉刀鈴, 및 동례전(중양)의 지신 地伯級干 등 대소 4 건의 이야기가 '又'자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바록 '처용'의 이야기가 전체 문장 분량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줄도 같지 않고 '又'자로 연결된 3건의 이야기 및 마지막 결론부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해석을 어떻게 감행할 수 있었을까 이해하기 어렵다.

단 처용설화에만 있는 향가, 즉 「처용가」만을 연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향찰 語釋 등에서) 혹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도 배경 설화에서 본질적 성격을 구한다면, 전체 설화의 취지를 파악해야만 올바른 해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처용설화」를 四方位神⁷⁾에 의한 동일한 신라의 망국을 경계하는 兆朕현상으로 파악하여, 금기창의 학설에 조짐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름대로의 전거를 보완하여 그 兆朕性을 하언코자 한다.

⑦ 우리의 이야기 장르를 자아와 세계의 대결구조로 풀이하려는 說 ; 이것도 동양인의 의식구조는 宇宙生成論부터 陰陽五行의 調和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망각한 '신사대주의' 탓이라 할 것이며,

⑧ 그외 “진은 전이고 소설은 소설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說, 전을 교술장르로 보는 說, 滑稽을 코믹의 譯語라고 하는 說. ‘烏有 蘭’의 뜻도 모른 채, 『烏有蘭傳』으로 파악하고 풍자성을 논하는 넌센스 박사 등등은 新事大 家들의 말재주에 현혹되어 群集盲從하는 현상들이라 하겠다.

6) '처용가'를 識謠로 파악한 琴基昌은 理學博士 出身의 국문학자로 안다. 또 세상이 모두 『금오신화』가 우리 소설의 처음이라고 하던 1975년에 「謠信傳」의 소설성을 들어 「傳奇小說」의 嚆矢는 신라에 있다. 를 발표한 池液模는 獨學으로 이룩한 국문학자이며, 1972년에 漢文 文體에 착안하여 '가전체'를 '假傳'으로 밝히고, 1975년에 「崔致遠傳」의 소설성」을 밝히고, 84년에 「처용설화」를 신라의 망국로 파악하고, 『수이전』의 類別性을 밝힌 拙著는 法學徒 출신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7) 方位神에서 중양을 포함하는 경우는 이른바 '五方神將'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西方이 빠져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찬자 김일현이 서방은 거룩한 불국정토이며 아미타불의 영토이므로, 잡신이 출몰을 할 수 없는 성역으로 인식한 것이라 생각한다. 후술하는 바, 『유사』에는 『사기』나 다른 사서와는 달리 天候兆를 도외시 한 것도, 부처의 권위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II. 『삼국유사』의 兆朕 概觀

1. 兆朕의 개념

兆朕이란 三才의 異變과 같은 媒介物을 통하여 未知의 사건을 暗示하는 神秘스런 徵表로써 사람을 鑒戒하는 天地神鬼의 意志라 定義한다.⁸⁾

三才의 異變이란 곧, 질서정연한 우주 삼라만상의 운행에도 때로는 陰陽五行의 운행질서가 균형과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異變현상을 말한다.⁹⁾ 그것은 마치 인간의 신체에 일어나는 각종 병리적 형상과도 비교가 된다.

未知란 곧, 未來와 구별된다. 미래란 시간적으로 장래에 한한 것이지만, 미지란 시간적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두에 다 해당하는 것으로, 모르면 다 미지인 것이다.¹⁰⁾ 그리고 이번이 일어나는 영향 관계도, 우주 자연에 이번이 먼저 일어나서 그것이 인간사의 길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마는, 때로는 반대로 인간사의 변고로 인하여 자연에 이번 현상이 나타나는 수도 있다.

暗示란 곧, 啓示와 구별된다. 인격적인 절대 유일신이 三才를 지배하는 종교에서는 신이 계시를 한다. 그 계시에는 인간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모든 길흉과 이에 대처할 일을 매개물을 통하지 않고, 신

8) 이것은 물론 오늘날 과학적인 입장에서 풀이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자연현상에 불과한 것을, 원초부터 불완전하고 고독하게 태어난 인간이 그것을 異變으로 보고 불안하고 초조한 자기의 운명을 안전권으로 벗어나 보려는 인간들의 풀이에 불과하다.

9) 唐 韓愈는 '大凡 物不得其平則鳴'이라 하였다. 이 '鳴'도 무형의 조짐으로, 그 발생의 원리면에서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10) 이와 같은 의미에서 「日本民俗學事典」(大塚民俗學會 編)의 “장래를 시사하여 예지, 예측케 하는 현상으로 兆, 前兆라고도 하는 속신..”라고 한 해석이나, 이희승 「국어대사전」 등의 해석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 직접 지시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만 신의 지시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 계시이다.¹¹⁾ 그런데 암시는 이변, 즉 조짐적 현상은 우주 자연에 나타나지만, 그것은 매개물에 불과하고, 그것을吉, 또는凶으로 판단하는 것과 그對策은 당사자인 인간이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계시에는 오판이 있을 수 없지만, 조짐적 암시에는 오판과 실책이 거의 대부분이다.¹²⁾ 가끔 김유신과 같은 최대의 영웅들은 그것을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역이용하기도 한다.¹³⁾

神秘스런 微表란, 합리적 해석과 반복을 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因果 관계를 갖는 표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비성 나름의 논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시하면, 어떤 사람이 당쟁에 쫓겨 영남지방으로 달아나다가, 占術家를 찾아 斷時占을 쳤더니, 점술가가 즉시 그 사람을 낙동강가에 데리고 가서 모래 위에 눕혀 놓고, 한 발 길이의 지름대를 배꼽 위에 세워 놓고 주전자로 약 10분간 물을 드리우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이제는 성명만 바꾸고 낮선 곳이면 어디에 가서 살아도 안전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점을 치던 그 시각에 그를 잡으려는 상대방도

11) 『구약성서』 「列王記 上」 17: “저가 여호와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앞 그릇 사넛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 왔고...”

『신약성서』 「마태복음」 제 2장: “.....그들이 동방에서 왔던 별이 그들보다 앞에 진행하여, 어린 아이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 위에 멈추었다.” 등.

12) 줄고: 「三國亡北의 機相」 상, 하 영남대 『인문연구』 제 5호, 제 6호, 1984년, 1985년, 참조.

13) 「삼국사기」 「김유신전」: 진덕왕 원년에 비람이 탄역하고, 월성이 별이 떨어지자 군신이 크게 동요하므로, 유신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연에 달아서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떨어진 별이 도루 하늘로 올라 갔다’하여 민심을 안정시킨 일.

또 백제군과 도살성에서 대치할 때, ‘水鳥東飛’ 현상을 보고 장졸들이 동요하자, 간첩이 들어올 것을 알고 이를 역이용하여 ‘내일 원군이 온다’는 소문을 퍼뜨려 적군이 물러가게 한 일.

『유사』 권 1, 「太宗春秋公」: 나당 연합군이 박진군 물가에 주둔하고 있는데, 새가 진영 위에서 선회하는 것을 보고, 원수가 상해를 당할 조짐이라 하여 소정방이 물러가려고 하자, 유신이 칼로서 새를 겨누어 떨어뜨린 일 등.

점을 쳤는데, 점괘에 나오기를 “도망자의 등 밑에는 수 백리 모래가 깔려있고, 배꼽 위에는 한 길 높이의 물이 차 있다”고 되어 있으니, 이는 틀림없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점술가는 조양래라는 실재 인물이라고 한다.

天地神鬼의 意志란 곧, 儒家의 汎神論은 천지 자연에도 靈이 존재하고 또 作用도 하고 있는데, 이 영에도 陰, 陽이 있어서 ‘靈之陽曰神 靈之陰曰鬼’¹⁴⁾라고 하여 神의 작용은 吉兆이며, 鬼의 작용은 凶兆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유가의 天地神鬼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불교의 부처님과 같이 全知全能한 절대적인 신격적 존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인간에게 어떤 전달할 의지는 있어도 ‘天不能諄諄其言’¹⁵⁾라고 하여 그것을 순순히 인간에게 타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異變을 보여서 인간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이 異變이 곧 兆朕이다.

그런데 보통 조짐의 발생은, 위와 같이 자연발생적 이변이 주가 된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이 異變의 발생을 호소하거나, 조작하여 가짜 조짐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積極兆 또는 僞兆라 하고, 천자 즉 자연발생조를 消極兆라고도 한다.

2. 『유사』의 조짐 개관

동양의 옛 역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兆朕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¹⁶⁾

14) 김시습 『金鰲新話』, 「南炎浮洲志」; 王曰 鬼者陰之靈也 神者陽之靈也 蓋造化之迹 而二氣之良能也

15) 『三國史記』 卷 第十五, 高句麗本紀, 第三, 次大王 三年, “秋七月……然天不能諄諄其言 故示以妖怪者.”

16) 특히 儒敎社會에서는 조짐 중에서도 天候兆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그것은 『承政院日記』의 조목마다 첫머리에는 반드시 일월성신에 관한 기록부터 시작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또 실제로 천후조로 인하여 왕권을 이양한 사례도 있다. 李珣의 『石潭日記』에는 “日有青赤暈 白氣如虹貫輪 王太妃還政于上……”

중국의 25사에는 거의 예외 없이 「天官書」 및 「오행지」가 있는데, 이 「오행지」는 곧 조짐에 관한 기록들이다. 우리의 『삼국사기』나 『고려사』도 마찬가지이다. 『삼국유사』(이하 『유사』라 함)에도 조짐에 관한 기록들이 상당량이 있다.

그렇다면, 『유사』의 찬술 취지는 불력의 神異를 수단으로 하여 佛教 弘通을 목적으로 쓰여진 불교적 이야기집인데,¹⁷⁾ 그런데 어떻게 儒家的 汎神論에서 생성한 兆朕事件들을 믿고 수용하였겠는가? 이는 아마도 불교의 전당인 사찰의 경내에 七星閣이나 山神閣을 설치함과 같이 불력의 권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유사』에는 道家의 天帝 및 長生不死思想¹⁸⁾과 儒家의 汎神論의 兆朕思想을 상당한 비중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것은 『유사』 전체를 압권하고 있는 기이 제 1의 첫 머리를 「단군신화」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단군이야 말로 도가사상의 표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어서 고구려, 북부여, 동부여, 신라, 가락국 등의 肇國神話들은 모두 天帝思想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며, 기이 제 2의 첫 머리는 신라 문무왕의 三國통일을 暗示하는 陰禹兆로 시작하여 많은 兆朕事件들이 집중되어 있다. 즉 『유사』 전체 5권중에서 1권은 도가적 천제사상으로 할애하고, 2권은 유가적 조짐사상으로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¹⁹⁾

「처용랑 망해사」도 역시 기이 제 2편에 기록되어 있는 신라 망국조이다. 그러므로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사』 전체의 조짐을, 조짐 분류의 전례²⁰⁾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기로 한다.

17) '이야기집'이란, 선화의 범위를 벗어나서 소설까지도 포함한 개념임.

18) 『유사』 기이 제1, 「古朝鮮」; 「御國一千五百年」 또는 「壽一千九百八歲」등

19)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六堂 최남선이 「기이」 제2편의 설정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本無 當無」라고 한 것은 속단이 아닐 수 없다.

20) 출고: 「兆朕의 分類와 實際」, 『韓國學論集』 제1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83년.

1) 消極兆

소극조는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자연발생의 異變을 인간이 조짐으로 받아드린 것이다. 그러므로 소극조라는 말이 가능하다. 소극조 가운데, 三才의 그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귀신은 그 모양과 성질이 사람과 가장 가까우므로 이를 합쳐서 人鬼兆를 설정하고, 夢兆는 인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양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독립시키고, 地에 속하는 地變兆, 動物兆, 植物兆 역시 중요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1) 天候兆

『유사』는 다른 史書들과는 달리 天候兆가 드물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고구려나 백제의 국망조를 『유사』에 거의 수용하면서, 日, 月, 星, 雲, 風雨에 관한 兆는 제외하였다. 『유사』에도 간혹 「二日並現」이나 「彗星歌」나 「延烏郎細烏女」와 같은 天候兆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천후조 자체에 이야기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日怪나 星怪를 물리친 月明師나 融天師나 왕비가 손수 짠 세초(비단)의 神通한 呪力에 초점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사』에서 천후조를 기피하는 이유는 아마도 불력의 권위에 손상이 있을까 봐 염려하여 이를 회피한 것이라 생각된다.

(2) 人鬼兆

가) 陰禹兆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사』의 「紀異」 제1편, 즉 고조선의 서두는 「檀君神話」로 시작하고, 「기이」 제2편, 즉 통일신라의 시작인 「文虎王法敏」의 서두는 兆朕으로 시작한다. 그 조짐의 종류는 禹兆 중, 陰禹兆인데,²¹⁾ 음우는 주로 백제가 망할 때, 陰陽의 부조화로 인하여 陰氣의 과잉이 생겨났고, 과잉된 음기는 갖가지 妖物로 凝結되어 백제의 도

21) 줄고 : 「〈文虎王 法敏〉의 條의 巨屍兆 研究」 참조.

성에 나타났다. 『유사』 「태종 춘추공」조에 나타난 것만도 20여종이 되는데, 現慶 4년(659) 2월에 “衆狐入義慈宮中 一白狐坐佐平書案上”이라던가 “有一鬼入宮中 大呼曰 百濟亡百濟亡 即入地……”라고 하는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이러한 요물들의 精氣가 백제가 망한 후에 하나로 凝鍾되어 크나큰 陰禹가 되어 나타났으니, 곧 身長 73척, 足長 6척, 陰長 3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만약, 고려 말에 나타난 陽禹처럼 200석의 소금을 먹고 자기 몸을 녹여서 다시 세상에 퍼졌다면,²²⁾ 세상은 다시 三紀(36년간)가 못되어 板蕩이 날 것인데, 다행하게도 나당연합군의 기세에 밀리어 사자수 남쪽 바다에 죽은 여자 시체가 되었다가, 이 死女屍는 바다의 소금물에서 녹아서 바다의 괴물이 되기 전에, 明朗法師의 文豆婁秘法에 의하여 수몰된 당나라 군사들의 陽氣와 중화되어 버렸으니 인간 세상에는 평온을 누리게 된 것이다.²³⁾

나) 陽 禹 兆

『유사』에는 양우조는 없다. 다만 고려 말에 묘향산에서 한 포수가 만난, 남자 모양의 거물이 있었는데, 11간 집에 간막이 없이 들어 누웠더니, 백제 말 73척의 음우와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포은 선생의 해석에 의하면 “이는 禹라고 하는 것인데, 대자연이 운행하는 가운데 저절로 생겨난 음양의 불균형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기의 과잉력이 응결된 것으로, 이것이 인간 세상에 다시 퍼지면 세상이 혼란에 빠진다고 하면서 고려의 운명을 한탄했다고 한다.

이 외에 『東野彙輯』 권 8에도 「津路逢人問異形」이란 제목으로 전문 약 1,620자로 되어 있어, 『靑丘野談』 권 1, 「問異形洛江逢圃隱」, 1,560

22) 『靑丘野談』 권 1, 「問異形洛江逢圃隱」 및 『東野彙輯』 권 8, 「述異部」, 「津路逢人問異形」(鄭明基 권 『동야회집』에는 권지 15에 수록되었음.) 등 참조.

23) 陰禹兆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 「文虎王 法敏條의 巨屍兆 研究」를 참조하기 바람.

자보다 약간 길며, 이야기의 주역이 영변에 사는 車殷軾으로 되어 있으며, 禹의 집이 6칸 두줄박이 12칸으로 되어 있으며, ‘外史氏曰’이란 찬자의 논평이 약 4줄 더 있는 이본이 있다. 그 외 禹 이야기는 과묵한 소치로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음.

다) 鬼 兆

백제 의자왕 궁중에 한 귀신이 들어와서 큰소리로 ‘百濟亡百濟亡’하고는 즉시 땅 속에 들어가고, 귀신이 궁궐 남쪽 노상에서 우는 등 주로 망국조에 나타난다.

라) 神 兆

處容은 龍神兆이며, 祥審과 玉刀鈴은 山神兆이며, 地伯級干은 地神兆이다. 또 「寶藏奉老 普德移庵」편에 “後有神人 現於高麗馬嶺 告人云 汝國敗亡無日矣”라고 한 대문은 神人兆이다.²⁴⁾ 그 외에 「未鄒王 竹葉軍」이 있으나, 이는 神軍이 직접 나타나 싸운 것이므로 兆라 하기 어렵다.

마) 人 兆

『유사』에는 인조가 별로 없는데, 다만 「태종 춘추공」편에, 백제 王都 사람들이 무고히 놀라서 달아나다가 백여명이 죽었다. 는 기록이 있다.

(3) 地 變 兆

혜공왕대, 대력초(766년) 강주관서 대당 동쪽의 땅이 꺼져서 연못이 되고, 연못에 잉어가 자라면 연못도 따라서 커졌다. 또 고구려 국경에서 일어난 ‘逆流水’현상(물은 유동적이라, 눈비로 나타나면 천후조가 됨)이 일어났고, 백제 왕도의 우물물이 피빛으로 변하였고, 또 사자수 물도 피빛이 되었고, 효공왕대, 참포 냇물과 바닷물이 3일동안 싸우는 등.

24) 神은 靈之陽과 陰으로 구분해서 말할 때는 神은 吉兆, 鬼는 凶兆라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4) 夢 兆

북부여의 재상 아란불의 꿈에 천제가 나타나 동부여로 옮기라는 현몽은 계시에 가깝고, 언니 보희의 꿈에 서악에 올라 오줌을 누니, 서울 도성이 온통 잠겨 버린 꿈을, 문희가 알아채고 비단치마 한 감을 주고 사서 왕비가 되었다는 ‘文姬買夢’이야기는 소설이 될만큼 유명하다.

원성왕이 아직 각간으로 있을 때, 꿈에 복두를 벗고 素笠을 쓰고 12줄 거문고를 안고 天官寺 절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이에 대하여 占夢者는 ‘失職入獄之兆’로 해몽했고, 아찬 餘三은 ‘登大位入宮之兆’로 해몽했는데, 결과는 과연 왕이 되었다.

(5) 動・植物兆

興兆 ; 선덕여왕이 거울에 영묘사 玉門池에 개구리가 우는 것을 보고, 서쪽 女根谷에 적군이 들어왔음을 알고 군사를 보내서 掩殺한 사건은, 흉조도 될 수 있는 것을 선덕여왕의 영특한 판단에 의하여 흉조로 돌려놓았다. 이 사건은 조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당태종이 보낸 모란화 그림을 보고 향기가 없음을 예언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헤아린 단순한 지혜로운 판단이지, 신비스런 徵表가 아니므로 兆는 아니다. 또 자신의 死日과 葬地를 예언한 것은 兆, 즉 媒介物(이변이나, 개구리와 같은)이 없으므로 조짐이 아니고, 신비한 예언이다.

亂兆²⁵⁾ ; 해공왕대, 天狗가 궁 동루 남쪽에 떨어졌는데, 머리가 독만 하고 꼬리가 4척, 털이 불빛이며 천지가 진동했다. 금포현에 벼이삭이 쌀 이삭이 되고, 궁중 뒷간에서 연꽃 두 줄기가 피고, 효공왕대 봉정사와 영묘사에 까막 까치가 등지를 수 없이 짓는 것 등등.

亡兆²⁶⁾ ; 오희사에 赤大馬가 나타나서 주야로 6회, 돌아 다녔다. 衆狐

25) 줄고 ; 「삼국 땅조의 양상」 상, 하 『人文研究』 5,6호 참조.

26) 줄고 ; 동상

가 의자왕 궁중에 들어와, 그중 白狐 한 마리가 좌평의 책상 위에 올라 앉았다. 태자궁 암탉이 참새와 교미했다. 서해변에 물고기가 때죽음을 하였다. 청개구리 수 만 마리가 나무위에 모였다. 사슴만한 개들이 사자수에서 왕궁을 향하여 짓고, 성중의 개들이 노상에 모여서 울기도 하고 짓기도 하였다. 궁중의 괴화나무가 사람처럼 울었다. 등등. 이와 같은 동·식물조는 국란 국망 이외에도 많이 있으나 대개 비슷한 것으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6) 器物兆

경명왕대, 사천왕사의 벽화 속의 개가 울고, 벽화의 개가 마당에 뛰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오방신장의 활줄이 끊어지고, 황룡사의 탑 그림자가 금모사지택 마당에 한달동안 거꾸로서는 등.

2) 積極兆

적극조는 占兆와 圖讖兆로 구분되고, 점조에는 形象을 보고 점을 치는 卜占과 數를 얻어 점을 치는 筮占과 샤만 계통의 接神占,²⁷⁾ 등 세가지 유형이 있고, 도참조에는 河圖, 洛書 계통의 讖書와 노래의 전파력을 빌린 讖謠가 있는데, 참요에는 ‘처용가’처럼 신이 직접 불르는 수도 있고, ‘서동요’처럼 神性에 가장 가까운 14세 이하의 아이들의 입을 빌린 童謠도 있는데, 신격을 인정하는 불교계에는 전자가 많고, 유가계의 사서에는 후자가 많다.

(1) 占 兆

『유사』에는 신라 제 8대 阿達羅 尼叱今 때부터 이미 異變이 일어날 적마다 日官을 시켜 占을 쳤다는 기록이 있으나, 일관이 무슨 점을 쳤

27) 卜占에서는 形象 즉, 거북의 등을 불로 지졌을 때 나타나는 금자가 곧 兆이며, 筮占에서는 蓍草가지를 헤아려서 양수와 음수를 얻어서 만든 卦가 곧 媒介物이므로 兆가 되겠으나, 샤만의 接神占은 매개물이 없으므로 兆가 아니고, 啓示의 성질에 속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占이라는 의미에서 함께 언급한 것이다.

는 지에 대하여는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 卜占이 들어온 흔적은 과문한 탓인지 지금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筮占은 조선시대에 성행하였으며, 巫覡이 성하다가 불교로 넘어간 신라시대에는 아무래도 接神占이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2) 讖 書

참서는 대개 人爲의인 陰謀에 의한 僞兆가 많다. 『유사』의 「射琴匣」 설화에서 노인이 書出池에서 나와, 왕명을 받고 까마귀를 쫓던 騎士에게 건너준 봉서에는 「開見二人死 不開一人死」라고 한 것은 대표적인 위조였다.²⁸⁾

진성여왕대에 노상에 던져진 陀羅尼 隱語, 즉 “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蘇判尼 于于三阿干 曼伊娑婆阿”와, 백제 궁정 땅 속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쓰인 “百濟圓月輪新羅如新月” 등은 일견 계시로 여기기 쉬우나 앞의 ‘서출지 봉서’와 같이 길흉의 해석을 사람에게 의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서에 속한다.

(3) 讖 謠

참요도 대개 사람이 조작한 僞兆가 많다는 점에서 적극조가 된다. 선화공주를 유인하기 위하여 마동이가 지은 ‘서동요’는 아이들에게 憑依한 神意를 가장한 점에서 참요이며, 참요의 시초는 동요였다.²⁹⁾ 요석공주를 얻기 위하여 원효대사가 지은 ‘沒柯斧歌’도 비록 본인이 직접 부른 노래이기는 하나, 隱語的인 暗示로 되어 있으므로 참요이다. 그러나 ‘처용가’나, 山神地神이 불렀다는 ‘智理多都波都波’ 등은 神作으로 되어 있어, 사람이 위조하는 적극조의 예외가 되고,³⁰⁾ 또 신이 직접 불렀다는 점에서

28) 참고 : 「射琴匣 설화 연구」 『人文研究』 제 7집, 2호,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간행, 1985년에서 이 설화의 선행사건은 親佛派와 排佛派의 軋轢에서 빚어진 사건이며, 참서는 배불과의 위작임을 논증한바 있다.

29) 『十八史略』 권 1, 周, ‘宣王時, 有童謠曰 擊弧箕服 實亡周國’

계시와 구별하기 어려우나, 역시 길흥의 해석을 사람이 해야 하므로 조짐임에는 틀림이 없다.

(4) 訴願兆

소원조는 적극조의 대표격이다. 보통 조짐은, 첫째 나타나는 이변현상이 있고, 둘째 이를 본 당사자들의 판단이 있고, 셋째 판단에 따른 조치가 있는데 비하여, 소원조는 여기에 두 단계가 더 첨가된다. 즉 먼저 원한이 있는 자의 呼訴가 있고, 다음에 이에 대한 神明의 感應이 있고 난 뒤에 보통 조짐의 세 가지 단계로 이어지므로 결국 소원조는 5단계의 과정을 겪게 된다.

『유사』, 「진성여왕 거타지」편에서, 진성여왕대에 국정의 문란을 비방하는 陀羅尼 隱語가 노상에 투척되자, 이 은어를 지을 만한 지식인은 王居仁 밖에 없다는 이유로 거인이 투옥되자, 거인이 억울한 사연의 시를 지어 하늘에 호소하니, 벼락이 옥을 쳐서 풀려났다. 이 때, 詩는 소원이고, 벽력은 하늘의 감응인 동시에 兆이며, 이를 보고 집권층이 판단 반성하여 왕거인을 석방 조치하였다. 그 시에는 燕丹泣血虹穿日 鄒衍含悲夏落霜 今我失途還似舊 皇天何事不垂祥라고 하였다.

『유사』 권 제 5, 「避隱」 제 8, 「信忠掛冠」편에는, 효성왕이 잠저시에 신충과 함께 궁정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돌면서 ‘뒷날에 그대를 잊는다면 이 잣나무가 있다’라고 잣나무를 두고 맹세를 하였는데, 얼마 후 왕이 되어 공신들을 상줄 적에 그만 신충을 빠뜨렸다. 이에 신충이 원망의 시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더니, 잣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마르자, 왕이 이를 보고 깨달아 신충에게 벼슬을 내리니 잣나무가 소생하였다.

30) 참서나 참요는 어떤 인간의 야심과 음모에 의하여 지어지는 것이 많다. ‘처용가’나 ‘지리다도파도파’는 신이 직접 부른 노래이므로 소극조이지 적극조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따로 나누면 혼동되기 쉬우므로, 여기에 함께 언급한 것임.

Ⅲ. 本文의 兆朕性 分析

가) 第四十九 憲康大王之代 自京師至於海內 比屋連牆 無一草屋 笙歌不絕道路 風雨調於四時.

제 49헌강왕대는 신라 왕조 56왕, 992년(BC 57~AD 935) 가운데, 전국 932년~943년 사이의 11년간에 해당되고, 신라 왕조가 끝나기 약 50년 전에 해당된다. 신라는 7세기~8세기의 전성기를 지나서, 이 시기는 이미 쇠운에 접어든 시기였다. “서울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집과 담장에는 한 채의 초가도 없고, 길에는 노래와 음악이 끊이지 않고, 풍우는 사시에 끌고루 내렸다.”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기록은 『유사』, 기이 권 제 1, 〈又四節遊宅〉에서도 볼 수 있다.

春東野宅 夏谷良宅 秋仇知宅 冬加伊宅. 第四十九 憲康王代 城中無一草屋 接角連牆 歌吹滿路 晝夜不絕

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신라가 삼국을 통합한 후 국민들의衣食住가 완비되어 백성들은 할일이 없어서 주야로 음주가무와 사치풍조가 만연하였음을 뜻한다. 즉 ‘盈虛有數’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왕 2년에는 고려 태조 왕건이 태어났고, 5년에는 일길찬 신흥의 반란이 있었다.

나) 於是大王遊開雲浦 王將還駕 晝歇於汀邊 忽雲霧冥暗 迷失道路 怪問左右 日官奏云 此東海龍所變也 宜行勝事以解之 於是勅有司 爲龍創佛寺近境 施令已出 雲開霧散 因名開雲浦.

이 단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불교 흥통이란 『유사』의 찬술동기에 따른 망해사의 연기설화이다. 즉 절을 짓기 위하여 동해의 용이 운무로써 왕을 위협하여 절을 짓겠다는 항복을 받은 것이고, 둘째는 개운포 지명유래에 관한 연기설화이다.

다) 東海龍喜 乃率七子 現於駕前 讚德獻舞奏樂

동해의 용 : 疆域의 사방을 언급할 때는 대개 동에서부터 시작한다. 신라의 동쪽은 바다이며, 바다의 지배신은 용이다. 용의 권능은 治水와 風雲造化를 일으키는 것으로 농경사회와 수산 해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력적인 존재이다. 七子獻舞에 대하여는 현강왕을 포함한 7대 후인 경애왕대에 나라가 망한다는 國亡兆란 유력한 설이 있다.³¹⁾ 해룡이 자기를 위한 절을 짓기 위하여 운무로써 왕을 위협하여 절을 짓게 되면, 백성은 더욱 세금을 내야 되고 부역도 해야 하니 용의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 육지에 올라와서 왕에게 獻舞를 한다는 것도 常道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不祥之兆가 아닐 수 없다.

라) 其一子隨駕入京 輔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女妻之 欲留其意 又賜級干職

여기서 미리 전제해 뒀어야 할 것은, 첫째 「처용랑 망해사」는 「羅國將亡之兆」이지, 어느 왕의 개인의 운명에 관한 兆가 아니라는 것과, 둘째 兆朕의 媒介物은 象徴의 徵表이므로, 절대 유일신의 啓示처럼 구체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동쪽 물나라 용의 아들이 서쪽에 있는 사람 나라, 신라 서울에 들어와서 政事를 도운다는 것은 크나큰 변혁이 아닐 수 없다. 현강왕에서 7세를 말한다면 경애왕이 되고, 7대를 말한다면 경순왕이 된다. 경순왕은 동쪽 나라 신라에서 서쪽 나라 고려 왕건에게 귀순한 왕이다. 處容이란 이름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³²⁾ 그의 행적에 따라

31) 琴基昌 : 「처용가에 대하여」 『語文學』 54집. 한국어문학회 간 1993년.

32) 洪錫鑣 : 『東國歲時記』 「以獨靈謂處容 蓋假此也」

梁柱東은 그의 『古歌研究』에서 처용의 어의를 한자어 「獨靈, 草僞」에 빗대는 것은 謬說에 불과하다. 이유는 이들 인형이 생기기 전에 處容이란 인물이 선재했다. 그러므로 처용은 한자말이 아닌 「치용, 제용」 등 원어의 音借字로 해할 것이라 하였다.

姜信沆 : 「慈充」(무당)과 같은 말이며 후대의 중(僧)이라는 설이 있으나, 龍을 뜻하는 말 「치용」이며 후대에 「제용」으로 변했다는 전제가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字意上으로 풀어 보면, 바다에서 물으로, 이는 다시 신라에서 고려로, 즉 ‘곳에 따라 수용’된 즉 지조가 없음을 뜻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왕이 미녀로서 처를 삼아 그 마음을 붙이게 하고, 급간 벼슬을 준 것은, 왕건이 신라에서 고려로 귀순한 경순왕 김부에게 장녀 樂浪公主(후에 神鸞公主로 개호함)로 처를 삼고, 正承 벼슬을 준 것과 비유할 수도 있다.

마)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無(爲)人夜 至其家 竊與之宿 處容自外至 其家 見寢有二人 乃唱歌作舞而退

疫神은 후백제 건훤에 비유되고, 밤에 몰래 간음하는 것은 포석정 연회장과 왕궁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왕비를 능욕하고 빈첩들을 난행하는 징표로 볼 수 있으며, 노래를 부르고 물러가는 처용의 모습은, 마치 나라를 들어 고려에 귀순하는 경순왕이나, 세상을 등지고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마의태자를 연상케 한다.

그리고 원문 ‘變無人’을 ‘變爲人’으로 바꾸어 해석하면 뜻이 분명하다고 해서 ‘변하여 사람이 되어 밤에 그 집에 이르러’로 해석하는 이가 많은데, ‘變無人夜 至其家’, 즉 ‘변신하여 사람이 없는 밤에 그집에 이르러’라고 해석해도 말이 된다. 남의 글을 뜻이 조금 낫다고 해서 함부로 바꾸는 것은 삼가할 일이라 생각한다.

바) 歌曰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
羅 二盼隱吾下於叱古 二盼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
良乙 何如爲理古

이 노래는 위의 내용을 시적으로 읊은 것인데, 이를 무속적인 측면에서 역질을 다스리는 무당의 푸닥거리로 보는 학설은 상당한 논리성이 있다.³³⁾ 그러나 이 글의 결론적인 主旨라 할 수 있는 ‘乃地神山神知國將

33) 林基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二友出版社, 1981년. 외 다수설.

亡 故作舞以警之'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푸닥거리니 위협적인呪語도 결여되어 있다. 역시 '羅國將亡之 讖謠'로 보는 見解가 온당한 파악이라 하겠다.

사) 時神現形 跪於前曰 吾羨公之妻 今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 誓今以後 見畫公之形容 不入其門矣 因此 國人門帖處容之形 以僻邪進慶.

처용의 관대한 태도에 역신이 감동하여 앞으로는 문에 처용의 화상만 보고도 그 문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역신의 태도에서는, 견훤이 신라를 蹂躪하고 물러간 후, 자신도 아들 신검에게 유폐되었다가 끝내 고려에 항복하는 말로로도 볼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門에 처용의 얼굴을 그려 붙여 '僻邪進慶'하는 俗信의 緣起傳說이라 할 수 있다. 이를 '門神創始緣起傳說'로 보는 학설도 유력하다.³⁴⁾

아) 王既還 乃卜靈鷲山東麓勝地置寺 曰望海寺 亦名新房寺 乃爲龍而置也

제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처용랑 망해사」의 '망해사' 緣起傳說로 중간 결론을 지운 것임.

자) 又幸鮑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不見 王獨見之 有人現舞於前 王自作舞 以像示之 神之名曰祥審 故至今國人傳此舞 曰御舞祥審 或曰御舞山神 或云既神出舞 審象其貌 命工摹刻 以示後代 故云象審 或云霜髯舞 此乃以其形稱之

앞에서는 東海龍神의 獻舞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又) '상심'이라 하는 南山의 山神이 나타나서 왕에게 獻舞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산신의 춤은 민간에까지 많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춤

34) 玄容駭: 후대 무속의 門神과 연결시켜, 제주도 무가 「문전 본풀이」에 건주어 풀이했다. 「處容說話考」『국어국문학』 39,40 합병호, 1968년. 및 금기창: 「처용가에 대하여」『語文學』 54호, 국어국문학회, 1993년.

의 이름이 ‘어무상심’, ‘어무산신’, ‘상심’, ‘상염무’ 등으로 불리워졌고, 또 그 춤모양을 조각하여 후대에까지 보였다고 하는 기록으로 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곧, 신라 사람은 상하가 모두 춤과 노래로써 향락에 젖었고, 이로 인하여 국력이 쇠퇴하여 망국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차) 又幸於金剛嶺 時北岳神呈舞 名玉刀鈴

‘상심’이란 남산신의 헌무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又) ‘옥도령’이란 北岳의 山神이 왕에게 獻舞함을 말하였고,

카) 又同禮殿宴時 地神出舞 名地伯級干

북악신 ‘옥도령’에 이어서, 이번에는 中央의 지신 ‘地伯級干’이 왕에게 헌무함을 말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西方의 神이 생략된 것은 一然 선사의 信佛心에 서방 불국정토의 권위에 손상이 올까 봐 저어함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 서방을 제외한 四方位神이 차례로 나타나서 왕에게 가무를 받쳤는데, 이에 대하여는 『유사』보다 100여년 앞선 正史인 『삼국사기』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憲康王五年三月 巡幸國東州郡 有不知所從來四人 詣駕前歌舞 形容可駭 衣巾詭異 時人謂之山海精靈

‘不知所從來四人’은 『유사』의 四方位神과 일치하며, ‘詣駕前歌舞’도 일치하며, 사람들이 山海의 精靈이라고 하는 것도 「처용설화」의 전체 내용을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다. 단 순차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한꺼번에 나타난 것과 그것이 신라의 國亡兆라는 말이 없을 뿐이다.

이에 대한 후세 사가들의 기록 가운데서 가장 유사한 기록은 『東國通鑑』의 기록인데,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憲康王五年三月 王出遊鶴城. …………… 有異人處容者 奇形詭服 詣王前歌

舞. …………… 時又有四神人 衣巾詭異 形容可駭 不知從來 詣駕前歌舞 其歌有
智理多逃 都破都破等語 皆謂以智理國者多逃 而都邑將破 故歌以警之也 時人
不知 反以爲瑞 耽樂滋甚 故國終亡

이것은 앞부분은 『삼국사기』와 비슷하고, 뒷 참요부분은 『유사』와 거의 비슷하여, 『삼국사기』와는 달리 亡國之兆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처용의 所從由來에 대하여 매우 이색적인 기록이 있으니, 『大東史綱』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新羅憲康王四年三月에 新羅王이 出遊鶴城이라가……有異人處容(處容東海青龍之子 青龍與日本南海白龍相斗 失敗遣子來救) 者하야 詣王前歌舞하고 又有四神人하야 (皆從處容來) 又詣駕前歌舞하니 其歌에 曰 智理多逃면 都破都破라 호대 (青龍在東海 雨順風調 皆其所爲 若不救則漂流 如此則風雨不時 國將亡之說 一說以智理國者多逃 都邑將破) 時人이 不悟하고 反以爲瑞러라.

여기서는 처용이 왕에게 가무를 올린 것은 그 아비 동해 청룡의 심부름을 온 것인데, 심부름의 내용은 “동해 청룡이 일본 남해 백룡과 싸워서 보금자리를 잃었으므로 아들을 보내서 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처용을 따라온 四神人 역시 왕앞에서 가무를 올리고 ‘智理多逃면 都破都破’라고 하여, 은어적인 글자들을 바꾸어 뜻이 바로 통하는 한문으로 노래를 붙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은 이를 알아 차리지 못하고 도리어 상서로 여겼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처용설화」와 비슷한 내용이다. 그런데 나라가 장차 망한다고 ‘지리다 도파도파’라는 참요를 부른 이유가 아주 다르다. 그 세주를 보면,

청룡이 동해에 있어야만 비바람을 고르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를 구제하지 못하여 표류하게 되면, 비바람을 제때에 맞추지 못하여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된다는 설이다. 그리고 일설에는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다 도피하고 도읍이 장차 파한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처용이 나타난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고 구체적이다. 또 동해로 돌아가지 않고 왕을 따라 서울에 들어오게 된 이유와, 동해 청룡을 구제해 주었는지 못했는지도 궁금증으로 남게 된다. 그런데 여하튼 이 「처용설화」는 결과적으로 國亡兆를 면할 수 없는 것이 역사적 사실임에 비추어 본다면, 구제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동해 청룡이 보금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용자 처용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 왕을 따라 서울에 들어오게 되고, 따라서 용의 권능인 비바람을 때맞추어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라는 쇠하게 되는 것이다. 단 이 내용에 따르면 신라가 망하는 이유가 매우 달라진다. 그러나 일국의 흥망은 일시적인 비바람보다는 국민의 사치와 유흥풍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타) 『語法集』云 于時山神獻舞 唱歌云 智理多都波都波等者 盖言以智理國者知而多逃 都邑將破云謂也 乃地神山神知國將亡 故作舞以警之 國人不悟 謂爲現瑞 耽樂滋甚 故國終亡.

『語法集』에 대하여 지금까지 밝힌 바를 보지 못했는데, 이는 아마도 밀교계통 고승들의 豫言集이 아닌가 생각된다. ‘于時山神獻舞 唱歌云’에서, 산신은 例示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地神 海神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말한 ‘乃地神山神知國將亡’에서는 ‘지신’이 포함된 것과, 『삼국사기』의 ‘不知所從來四人’이나 『동국통감』과 『대동사강』에서 ‘又有四神人’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 노래하고 춤을 춘 신은 다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智理多都波都波’는 讖謠로 봐야 할 것이다. 참요는 대개 人爲的인 僞兆임으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하여 바른 해석

이 나오게 마련이다.³⁵⁾ 그것은 곧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알고서 모두 도피하고 도읍은 장차 파한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도피하는 자, 즉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첫째, 진성여왕대(887~896)의 난정을 비방한 타라니 隱語를 지었다는 죄목으로 투옥된 후 풀려나서 대야주에 은거한 王居仁과 渡唐遊學하여 實貢科에 합격한 후 신라에 돌아와 기용어져 가는 신라 사회를 돌켜 보려고 時務十餘條를 올려 개혁을 주장했으나, 무너져 가는 眞骨支配體制와 六頭品 신분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국정에 용납되지 못하고 끝내 세상의 시비소리를 피하여 가야산으로 들어간 崔致遠 등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 金可紀와 같이 渡唐遊學 후 아예 고국에 돌아오지 않은 부류가 있으며,³⁶⁾ 셋째로 승려 가운데서 朗慧和尚과 같은 이를 들 수 있다. 그는 원래 조상이 진골이었으나 부친 때 六頭品으로 강등된 신분으로 일찌기 仕宦을 단념하고 禪門에 들어가 公州에서 禪宗 九山の 하나인 聖住寺의 開山者가 되었다. 入山에 즈음하여 헌강왕에게 정치의 要諒로 ‘能官人’ 三言을 올렸다고 한다.³⁷⁾ 네째로 신라가 영영 시들어서 후삼국이 발호할 때 최치원의 문인 가운데, 건훤을 위하여 일을 한 崔承祐와 고려 태조 麾下에서 활동한 崔彥撝 등을 들 수 있다.³⁸⁾

그래도 국민들은 깨닫지 못하고 무슨祥瑞나 되는 줄 알고 탐락이 자심하므로 끝내 나라는 망했다는 것이다.

35) 여기서는 적어도 문맥상으로 僞兆라 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兆의 성질상 ‘天不能諱諱其言’에 비추어 볼 때, ‘智理多都波都波’를 이치상 天地神鬼가 示現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6) 金哲堉: Ⅲ 「古代社會의 崩壞」 〈文人階層과 地方豪族勢力의 結合〉 pp 611~613.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4년.

37) 琴基昌: 『語文學』 54집, 위 같은 논.

38) 김철준: 위 같은 책, 같은 논.

IV. 結 言

『유사』 「처용랑 망해사」조 연구는 우리 국어국문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문장 전체를 통일성있게 연구한 논문은 별로 없고, 대개 이 글의 전반부를 잘라서 처용가와 그 배경설화에만 한정적인 연구를 해 왔다. 그 결과 原文의 취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각양각색의 상상으로 인하여 盲人探象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유사』의 편찬취지는 비록 佛教弘通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수단으로서는 도가의 天帝思想이나, 유가의 汎神論의 兆朕思想을 수용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실례로서는 『유사』의 간관이라 할 수 있는 紀異 제 1편의 첫 머리를 道家的 발상이라 할 수 있는 단군 신화로써 압권하고, 기이 제 2편의 첫 머리를 유가의 범신론적 발상이라 할 수 있는 陰禹兆로서 頭括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사찰의 경내에 山神閣이나 七星閣을 수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교의 포용성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바탕 위에 서서 「처용설화」의 조짐성을 분석해 보았다.

「처용설화」는 각종 조짐현상이 집중되어 있는 기이 제 2편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설화의 배열방법이나, 그 결론 부분의 초점이 모두 조짐현상에 집중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兆朕의 이론적 바탕 위에서 「처용설화」의 조짐성을 규명해 보았다.

「처용랑 망해사」에는 대소 4건의 사건이 또 ‘又’자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공통적인 요소는 4방위신, 즉 東海龍神 處容과 南山神 祥審과 北岳山神 玉刀鈴과 中央地神 地伯級干이 왕 앞에 나타나서 獻舞奏樂하는 것이고, 그 헌무주악의 노래말은 ‘智理多都波都波’이며, 그 글의 결론 부분에서는 “乃 地神山神이 知國將亡하고 故로 作舞以警之한데 國人

이 不悟하고 謂爲現瑞라하여 耽樂滋甚하니 故國終亡하니라.”라고 직설하고 있다. 原文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間言이 심한 것은 진리를 왜곡할 염려가 있다.

그리고 ‘처용가’ 내용의 兆朕의 徵表도, 후백제 건환에 의하여 경애왕이 죽임을 당하고, 왕비 및 빈첩들은 능욕을 당한 사건과 對照되며, ‘智理’ 즉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곧 세상을 등지고 은거한 왕거인을 비롯한 최치원과 渡唐遊學에서 주저앉아 버린 김가기와 선문으로 들어간 낭혜화상과 건환이나 왕건과 같은 반대세력에 가담한 최승우 및 최언위 등과 照應되는 讖諺로 파악된다.

일반 史書의 조짐에는 天候兆가 가장 많고 또 중심이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유사』의 조짐에는 천후조가 거의 없다. 그것은 아마도 천후조는 조의 최고 권위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불가의 최고 권위인 부처님의 권위에 손상을 끼칠 것을 저어함이라 생각되며, 왕에게 헌무하는 方位神 가운데 西方神이 생략된 것도 역시 서방은 불국 토이기 때문에 잡신들의 출몰을 제외한 것이라 짐작된다.

제목에서 「처용랑 망해사」의 ‘망해사’를 대두시킨 것은, 『유사』 설화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설화의 내용을 일부분이나마 만드시 佛事의 緣起와 관련 시키는 것으로, 불교홍통이란 『유사』의 찬술 취지에 집착하여 모든 이야기를 佛事로 歸結시키는 一然 선사의 信佛心의 발로라 생각된다.